

남가주 형제교회

July 13, 2018



평신도 후기- 전민선 권사

목소리가 좋은 성우들이 성경을 읽어주니까 내가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선지자가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등을 구분해서 읽어주니까 더 실감이 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까지 깔려서 나오니까 졸음도 오지 않고 생동감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가끔 새벽기도에 빠질 때는, 목사님께서 저의 전화기에 다운로드 해 주신 드라마 바이블을 집에서 듣습니다.

목회자 후기- 이천선 목사

기존에 이용했던, 성경 읽기 음성 화일에 비해서 이번 드라마 바이블은, 성경 말씀을 정성이 담겨 있고 생동감있게 녹음을 해서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배경음악과 함께 들으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목회자로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는, 매일 저녁에 새벽예배 설교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목회자가 특별히 준비하는 것 없이, 새벽 예배를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성경 묵상시간이 없어진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